

장기전략리서치부
미래산업팀

뉴스클리핑

분야

부동산

내용

싱가포르 상장 리츠, 한국 투자 늘어난다 (서울경제)

- 한국에서 물류센터 투자에 집중해온 싱가포르계 투자자 메이플트리가 최근 강남의 오피스 매입 경쟁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
- 최근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상장 리츠의 해외 자산 편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메이플트리 리츠도 한국 오피스 시장에 관심

인프라

'韓 컨소시엄' 美 풍력발전단지 지분 인수... "25년간 투자 수익" (뉴시스)

-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금융투자업계와 '한국 컨소시엄'을 꾸려 일리노이 네브래스카, 텍사스에 위치한 미국 육상풍력발전단지 지분 인수에 성공
- 이번 계약을 통해 25년간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

인수합병

아비바, OSI소프트 50억달러에 인수

(Aveva to buy Softbank-backed OSIsoft in \$5 billion deal, Bloomberg)

- 아비바가 산업용 데이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OSI소프트를 50억달러에 인수
- 인수합병이 발표되고 아비바의 주가는 6.7% 상승

벤처캐피탈

와비파커, 2억4,500만달러 투자 유치

(Warby Parker, valued at \$3 billion, raises \$245 million in funding, Techcrunch)

- 온라인 안경 판매 업체인 와비파커가 최근 2억4,5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
-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와비파커의 기업가치는 30억달러로 상승

기타

'대체투자가 대세' 교공, PEF 출자 첫 4조 돌파 (더벨)

- 교직원공제회의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외 PEF 투자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가량 증가한 약 4조2,240억원으로 집계
-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투자 섹터·지역 다변화, 다양한 운용사 풀을 보유한 덕분에 PEF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

Benchmark 모니터링

(단위: %)

구분	BM	상승률					
		5일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YTD
부동산	FTSE EPRA/NAREIT Global REITs Index (TR)	0.0	1.3	3.6	-14.4	-15.8	-19.0
인프라	S&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(TR)	-0.9	1.3	-0.6	-11.0	-9.6	-15.9
프라이빗 에쿼티	S&P Listed Private Equity Index (TR)	1.6	4.5	7.4	-5.1	1.5	-9.9
헤지펀드	Hedge Fund Research Global Hedge Fund Index	0.2	1.5	4.7	2.9	4.9	1.8
원자재	S&P GSCI Index (TR)	0.0	5.0	12.5	-17.4	-23.5	-30.6

주: 2020.09.01 기준

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대안투자로서 국내 SPAC의 가능성

- 미국에서 SPAC(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· 기업인수목적회사)은 유망 비상장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.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SPAC은 시기마다 편차가 존재했지만 2007년 IPO 시장에서 건수와 자금조달 규모 기준으로 각각 33%와 25%를 차지할 만큼 존재감이 크다.
-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IPO 시장에서 SPAC이 차지하는 비중이 10% 이하로 감소하였다. 2015년부터 자름 증가하기 시작한 SPAC은 뉴욕거래소가 SPAC 신규상장 유치를 위해 상장조건을 수정한 2017년을 계기로 다시 빠르게 성장했다.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IPO 시장에서 SPAC이 차지하는 비율은 29%(건수 기준)로 파악된다.
- 국내에서도 SPAC이 유망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. 2010년 국내 SPAC 도입 후 지난 10년간 총 189개사가 상장하였고, 이들 중 95사가 합병에 성공하였거나 합병 진행 중이다. 합병기간(36개월)이 남아있는 SPAC을 제외한 국내 SPAC의 합병성공률은 미국(작년 말 기준 70%)과 비슷한 64.3%로 집계됐다. 금융감독원은 대형 SPAC의 합병대상 탐색과 발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자본요건을 완화한 2014년 이후 SPAC이 코스닥시장 주식발행건수의 20.4%를 차지하는 등 유망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.
- 하지만 미국에서는 SPAC이 올해 발생한 전체 IPO 건수에서 44%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312억달러를 모집한 반면, 한국 SPAC 시장은 2015년 44.5%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하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28%를 기록했다.

표 1. 국내 증시 유형별 상장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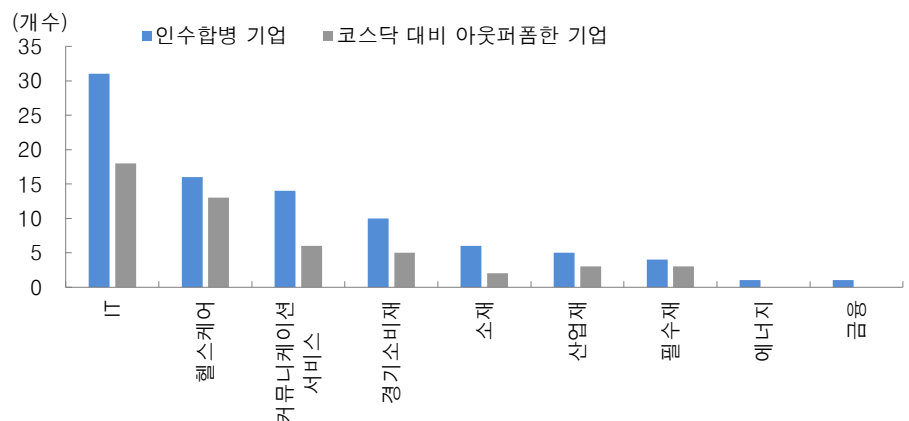
(단위: 사)

시장	구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유가증권	신규상장-일반	22	21	7	4	7	16	15	9	8	11	1
	신규상장-SPAC	3	0	0	0	0	0	0	0	0	0	0
	재상장	7	6	4	5	5	3	2	12	9	2	2
	SPAC-합병	0	0	0	0	0	0	0	0	0	0	0
	합계	32	27	11	9	12	19	17	21	17	13	3
코스닥	신규상장-일반	56	56	21	35	40	57	55	54	70	66	31
	신규상장-SPAC	18	1	0	2	26	45	12	20	20	30	12
	재상장	2	3	1	0	1	7	3	4	0	1	2
	SPAC-합병	0	2	4	3	2	13	12	21	11	11	9
	합계	76	62	26	40	69	122	82	99	101	108	54

주: 2020년 통계는 연초부터 08.31 까지 기준
 자료: 한국거래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- 한국은 미국 대비 혁신 기업 풀(Pool)의 규모가 작은 점과 SPAC의 역사가 짧아 운용사의 평판과 능력을 평가할 과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국내 SPAC 시장 활성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. 하지만,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는 국내 SPAC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. 시장의 불확실성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해진 기간안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SPAC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.
- 대안투자로서 SPAC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SPAC의 공모에 참여하거나 이미 상장되어 있는 SPAC 중에 공모가 대비 디스카운트된 SPAC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. 이 경우, '아래로는 막혀 있고, 위로는 열려 있는' SPAC의 수익구조를 이용하여 원금을 잃을 위험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인수가 실패하더라도 은행 예금 수준의 이자도 취득 할 수 있다.
- 인수합병까지 바라보며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는 헬스케어 섹터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.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SPAC과 인수합병한 유망 중소기업은 88개사로 파악된다. 이들의 합병 이후 주가를 추적한 결과 88개사 중 54.5%(48개사)만 같은 기간 코스닥 대비 아웃퍼폼했는데, 헬스케어 분야 기업들 중에서는 81%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. 헬스케어와 함께 SPAC과의 인수합병이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. 다만, 두 분야에서 코스닥보다 아웃퍼폼한 기업의 비중은 각각 58%와 43%로 나타나, 헬스케어 기업과 인수합병하는 SPAC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된다.

그림 1.SPAC 인수합병 기업 중 코스닥 대비 아웃퍼폼한 기업



자료: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작성자: 미래산업팀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